

종합·해설

# 오늘 민주 중앙위 '원샷통합' 논의

## 당 지도부, 대의원 수임 여부 관심 차기 당권주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의 논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결과가 통합의 흐름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다 이는 곧바로 총선 구도 및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후 폭풍이 중앙위원회의 개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주 당무회의에서 남긴 '야권 통합 추진과 관련한 사항'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통합 추진의 수임 권한을 현 지도부에 부여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외에서도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일단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중앙위원 450명 가운데 350명 가량을 설득해 놓은 만큼 통합 수임 권한을 부여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중앙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합 전당대회 개최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중앙위원회의에서 통합 추진 수임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당무위원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한, 당헌·당규로 인해 신설 합당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임권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대한 전체적 동의는 얻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통합의 동력을 얻어내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중앙위원도 1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통합 추진 및 수임권 부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과반수에 이르는 민주당 국

회의원들이 지도부의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위원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경우, 단독 전당대회 지지 세력과 통합 전당대회 지지 세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외에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가 통합에 대한 결론보다는 의견 수렴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의 후폭풍이 민주당 통합 논의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박지원 '3단계 통합론' 지도부 압박

## 단독전대→'혁명' 창당→당대당 합당 방식

## 박, 대의원 4천명 서명받아 단독전대 요구

23일로 예정된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3단계 통합론을 제안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각각 전당대회와 창당을 거쳐 당 대 당으로 합당하는 이른바 '3단계 통합론'을 제안했다.

3단계 통합론은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지도부 선출(신

임지도부에 야권통합에 대한권한위임)▲혁신과 통합도 신당 창당해 수임기구를 만들고 통합 권한 위임 ▲양당이 공식적 수임기구를 통해 협상한 후 당 대 당 통합(1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는 정당 아니기 때문에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영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도부가 신당창당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16일 창당하고 17일 오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어 합당결을 한다는 계획은, 이 중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준비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4600명 이상의 대의원 서명을 받아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단독 전당대회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중앙위원회 결과를 보고 대의원 서명을 이석현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에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FTA날치기' 허탈한 野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 이 통과된 22일 오후 야당의원들이 발언대에 앉아 허탈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권 통합정당 '2030세대' 공들이기

## 비례대표·최고위원 배정 검토...정책당원 신설도

통합을 준비 중인 민주당 등 야권이 꼽은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선거와 여론전에서 이들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을 주축으로 통합정당을 추진 중인 야권 연석회의는 우선 35세 이하 청년층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년층이 직접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과통합은 4명의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정하는 방안을 주

장하고, 민주당은 2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은 '슈퍼스타K' 방식으로 청년 출마자들을 추려낸 뒤 청년 당원이나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층을 당 지도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혁신과통합은 2030세대의 남녀 1명씩을 자동적 최고위원에 선임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명적 최고위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까지 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온라인을 통해 당원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정책당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당비를 내는 당비당원과 달리 온라인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회 정당원' 제도도 거론된다. 당의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책이나 행사에 1번만 참석하면 당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당의 정책 이념이나 강령 중 일부만 동의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헌·당규 무시한 공중분해식 통합 반대"

# 민주 지도부 야권통합방식 '파열음'

## 민주모임, 과반수 이상 목표 서명 돌입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야권 통합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통합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3일까지 민주당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상당수도 통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박주선 의원(동구)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민주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야권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전면 비판했다.

민주모임은 이날 "당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의결 수렴 과정 없이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되고 있다"며 "당헌 당규가 무시된 채 추진되는 통합, 민주당이 공중분해 되는 식의 통합, 이런 야권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며 단순한 세력 결합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당권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을)새로운 정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헌에는 합당 등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으며 실제가 불분명한 몇 사람을 위해 당을 해체하는 신설 합당은 민주당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최고위원을 비롯, 강창일(제주 제주갑), 장세환(전북 전주), 조경태(부산 사하을),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김희철(서울 관악 을) 의원 등 각 지역별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주선, 이윤석, 김영록, 우윤근, 주승용 의원 등이 민주모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주지역 2~3명의 의원과 전남지역 2~3명의 의원들도 뜻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모임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은 이날 "오늘 아침까지 40명 이상이 동참한다는 서명을 했다"며 "내일까지 과반수 이상인 50명 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나설 것"고 말했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추진 방향에 반발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23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추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간의 정면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세일 "대중도신당 12월 발표...내년 총선서 후보 낼 것"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세일 한 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2일 "(창당에 대한) 합의가 잘되면 내년 총선에 당연히 후보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한나라당 흥준표 대표 초청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계층의 사회 명망가, 젊은 차세대 정치 지망생 등 새로운 정치, 국민통합 정치를 생각해 보는 분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며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합의가 되면 12월 중 (신당 창당) 발표할 것"이라며 "12월을 타깃으로 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당의 모습에 대해 "보수신당이 아닌 대(大)중도신당"이라고 규정, "진보·보수 중 합리적·개혁적인 분들을 합쳐 이념·지역·세대갈등을 없애고 미래 국가비전·전략을 향해 같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는 한나라당 흥준표 대표가 강연에서 "좌파도 아닌데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고마운 뜻인데, 덕담 아니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더는 기득권 양당구조로는 안 된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해 당원들에게 정치를 못 맡기겠다"는 게 국민의 뜻 아니냐"며 "그래서 시민후보를 만든 것이며, 국민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람을 찾습니다**

1982년(당시 서구 효덕동) 현재 남구 진월동 동사무소 부근에 거주했던 안영숙(60세 초반)을 찾습니다.

긴급 연락사항이 있으니 전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062)261-1385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형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 치료

**제16회 전국 스피치 기능 경시 및 유치부·어린이 응변 발표대회**

● 일시 :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강당 (상무지구)

● 주최 : 한국응변연설인중앙회

● 주관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지도자과정)

● 후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상 의 종 류	시 상 준 격	수 여 인 원	시 상 부 분	부 상
전 체 대 상	국회의장상	1명	전체평가 대상종 가장 우수한 연사 1명	대형 은배 장액금
전 최 우 수 상	통일부장관상	2명	학생부(유치·초·중·고)와 대학일반부 중 가장 우수한 연사 1명씩	대형 은배 장액금
각 부 대 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10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대학일반부, 각 2명씩	대형 트로피 장액금
각 부 최 우 수 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2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각 2명씩	중형 트로피 장액금
각 부 우수 상	광주광역시의회위원장상 전라남도의회위원장상	24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대학일반부, 각 4명씩	대형 트로피 또는 시계 장액금
단 체 우 수 상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상	3팀	초등부1팀, 중등부1팀, 대학일반부1팀	우수기 장액금

■참가대상 :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아래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제는 자유로 한다. 우리말 우리글의 뿌리를 알고 바로쓰기 위한 방안 그 외 유치부는 자유제 가능

■발표시간 : 유치부 2분, 초등부 3분, 중·고등부 4분, 대학·일반부 5분

■접수마감 : 2011년 12월 13일(화요일) 17:00

■접 수 처 : 503-2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42-2 (2층) 한국응변연설인 중앙회 TEL (062)385-7997, FAX(062)528-1020, 010-5692-9998

■명예대회장 : 남 경 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대 회 장 : 김 중 열 (한국응변연설인중앙회이사장, 고려인삼계통공사 대표)

■대회집행위원장 : 한 상 백 (한국응변연설중앙회 회장)

■심사위원 : 대통령상 수상자 및 관계기관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 (추후발표)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탄?**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봉(주거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동협: 601154-52-335334 서영섭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병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장애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 - 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 - 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자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A(세)-80%+α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6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우, 세, 9, 0, 0) 대표 **1544-5248** | 담보 **010-7112-3135**